

「의티리국 아마치전」 研究

金 重 河

- I. 序
- II. 連載時期的 前後 周邊事情
- III. 主人公 「아마치」에 對하여
- IV. 「아마치전」의 底本 「勸告大韓人士」와의 관계
- V. 「아마치전」의 作者와 文字選擇
- VI. 結

I. 序

開化期 新聞小說이란 開化期에 발간된 신문이 연재된 소설에 잠정적으
로 또는 편의상 붙여진 명칭이다.¹⁾

1895년 11월 7일부터 1896년 1월 26일까지 漢城新報에 「拿破崙傳」이 연
재된 것을 필두로 그 이후 발간된 여러 신문에 실리기 시작한 소설들을
지칭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몇 가지의 문제점을 남겨 두고 있
는 실정이다.

우선 그 형식적인 문제 —— 古代小說(前代小說)의 단순한 傳承이나, 새
로운 양식의 발생이나, 새로운 양식이라면 그러한 양식 발생의 근거는 어

1) 李在銑: 韓國開化期小說研究, 一潮閣, 1972, 서울.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研究, 一志社, 1975, 서울.
둘에서 이러한 用語가 생긴 셈인데 이 두 분은 견해를 거의 같이 한다.
李在銑教授는 “開化期新聞의 小說” 宋敏鎬教授는 “開化期小說” 또는 “韓未
의 新聞連載小說” 등으로 쓰고 있다.

디에 있는가 하는 따위의 것들이다.

다음은 開花期 新聞小說을 하나의 양식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文學史的인 位置와 意義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단언은 내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통설처럼 되어 있는, 前代小說(古代小說)과 新小說 발생 사이에 놓인 時間的 空白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新小說의 前身的 價値를 認定하려는 노력의 일단으로 연구되어 왔거나, 폭넓은 新小說의 발생과 同時的 意味를 발견할 수 있다는 방향의 연구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²⁾

필자는 先學者의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하면서 아직도 未解決의 상태로 남겨진 몇 가지 작은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大韓每日申報에 연재되었던 「의티리국 아마치전」을 대상으로 하여 이 소설이 실리게 된 前後 주변 사정과 「아마치」라는 인물에 대한 고증, 그 發生學的 地畧을 연구함으로써 開花期 新聞小說 發生의 일단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체로 開花期 新聞小說의 양식은 세 가지로 大別되는데 첫째 「○○전」 따위의 傳的인 것, 둘째 討論體, 셋째 回章體 또는 公案 形式이 그것이다.³⁾

本稿에서 문제 삼고 있는 소설은 그 첫째에 해당되는 傳的 形式의 것이다. 한 作品만으로 全體的인 一般性으로 擴大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지만 우선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필자의 태도다. 나머지 형식에 관한 것은 稿를 달리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李在鎭教授는 주로 前者 즉 新小說의 前身的 價値 쪽을, 宋敏鎬教授는 주로 後者 즉 同時代的인 것으로 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李在鎭教授는 開化期 小說이라 하여 新小說도 同時代的인 것으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다.

3) 拙稿, 開化期小說 “一捻紅” 研究, 釜山大學校 文理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14輯, 1975. p. 41에서 三大別하여 回章體小說, 問答體小說, 前代小說을 包含한 傳的인 것으로 나누었으나 이 중 問答體小說을 討論體小說로 바꾸었다.

II. 連載時期的 前後 周邊事情

「의티리국 아마치전」은 大韓每日申報⁴⁾에 1905년 12월 14일부터 시작하여 1905년 12월 21일 연재가 끝난다. 이것은 「소경과 안즙방이 문답」이 1905년 11월 17일부터 1905년 12월 13일까지 연재되고 난 다음 날부터 또 「향로방문의성(鄉老訪問醫生)이라」의 시작되는 날에 겹쳐져 있다.

「의티리국 아마치전」은 결국 두 問答小說 사이에 끼여 있으며 양식으로 보아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가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었다.⁵⁾

문제는 각기 다른 양식 사이에 「의티리국 아마치전」(이하 「아마치전」)으로 줄여 씀)이 끼여 있다는 것보다 이 작품이 실린 1905년 前後의 주변事情이 우리 歷史上 큰 變革과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周知하는 것처럼 1905년은 乙巳條約이 맺어진 해며 그것은 11월 17일이었다. 이 歷史的 사실은 다만 歷史的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나라 社會變革에 커다란 충격을 加했으며 그것은 또한 文化變化的 直接動機가 되었다.

1905년 주변의 시기는 그러므로 傳統的 文化現象의 瓦解期이며 새로운 文化的 出產을 위한 進통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900년을 중심으로 그 前後에 일어난 文化變化的 가장 두드러진 現象은 民族資本에 依한 新聞의 發刊, 또는 學會誌의 發行이 그것이다.⁶⁾

이 時期에 發간을 보게 된 大韓每日申報도 이러한 歷史的 사실에 충격 받은 결과 나타난 民族資本에 의한 新聞이다. 外面的으로는 韓國人이 아

4) 大韓每日申報(影印本) : 景仁文化社, 1976. 를 대본으로 사용했음. 이하 인용은 전부 이 책.

5) 李在鎭 : 前揭書 pp. 64~65.

宋敏鎬 : 前揭書 p. 33 등에서 對話體의 구성이 아니고 敘述體의 형식을 가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6) 京城新聞이 1898년에, 제국신문(대국신문) 皇城新聞 역시 1898에, 협성회 회보도 1898년에 창간되었다. 이보다 뒤에 나온 것으로는 大韓每日申報가 1904년, 萬歲報는 1906년, 國民新報는 1906년 발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民族의 性向이 강했던 것이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였다. 崔竣 ; 韓國新聞史 增訂版, 一潮閣, 1977. 서울. 李海揚 ; 韓國新聞史研究, 成文閣, 1971, 서울 등의 책들을 참조할 것.

닌 襄說이 社長이 되어 있었지만 實質的인 운영자는 梁起鐸이었고 이 新聞의 발간에 高宗이 비밀리에 出資까지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大韓每日申報의 性格은 대변에 드러난다.⁷⁾

新聞의 發刊과 그 新聞의 性格은 報道內容의 質과 性格을 決定하며 또한 거기에 실리게 되는 모든 文化的 發言과 無緣하지 않음은 사실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開化期 新聞小說의 內容과 性格을 단적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意圖를 究明하는 決定的 資料가 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⁸⁾

大韓每日申報의 性格은 한마디로 民族自存과 自主獨立을 위한 積極적 發言을 위한 公器였음은 周知하는 바다. 日帝의 勢力이 직접적으로 作用해 오고 그것은 民族自主性을 삭감하거나 억압하는 형식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時期에 大韓每日申報은 창간을 보게 되었으며, 때문에 排日思想을 북돋우고 大衆啓蒙의 重責을 스스로 지게 되는 것이다.⁹⁾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 論說이 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雜報欄에 실리게 되는 單信이나 寄書들의 役割도 중요한 것이었다.¹⁰⁾

다음으로는 新聞에 連載하는 小說이다. 이것은 論說이 지니는 直接性과

7) 崔竣: 前揭書 p. 106, p. 108, pp. 133~135, 李海暢: 前揭書 pp. 53~58 등을 참조할 것. 또 大韓每日申報 1905년 8월 11일 革新號에 실린 社告에 <善惡을明辨하야帝庭에 指佞革의 性質을 具하야하며 時事를 肝衡하며 昏味를 提醒흥은 仁人君子의 高目憂世는 風味를 舍有이고 褒貶之中에 混厚規箴을 隱然寓之하야使有 過者로 讀之而 改焉하머……>라 되어 있다.

또 崔竣의 前揭書 pp. 106~107에 의하면 高宗뿐만이 아니라 李容翊을 비롯한 애국지사나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은 하나같이 비밀 出資를 했다고 한다.

8) 趙演鉉: 韓國新文學考, 文化堂, 1966, 서울, pp. 159~162.

趙潤濟: 韓國文學史, 探求堂, 1971, 서울, p. 399.

9) 崔 竣: 前揭書, 李海暢: 前揭書 등 참조.

10) 雜報欄은 現代新聞으로 보아 三面的 性格을 띠고 있다. 자질구레한 單信에서부터 제법 큰 非公式의 소식은 주로 여기에 실리며 기사의 성격상 私的인 것도 이 欄에 실리게 된다. 開化期의 憂國歌辭, 志士들의 글들은 이 모퉁이에 실린다. 例로 1905년 9월 26일에 보면 「警告大韓全國人民」이란 글도 여기에 실려 있다. <……現今時代는 國家權利가 他人掌握에 歸하노日에는 人民의 財產과 生命을 不保하니 彼波蘭末年史를 觀하라>가 그 내용이다. 또 單信 속에도 상당이 대서문 꺾음과 채적을 담은 것들이 많다.

硬直性を 없애고, 보다 수월하게, 解說的 성격을 띠면서 啓蒙의 效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더욱 重要視해야 할 것이다.

文學의 양식이 그 時代的 要請에 의해 선택되고 완성된다는 논리를 수증하게 된다면 開花期 新聞小說 또한 時代的 要請에 의해 완성된 양식으로 보아야 하겠고 또 그럴만한 理由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1905년을 전후한 한국의 歷史의 여건과 日帝와의 聯關性을 염두에 두고 民族紙의 發刊이 갖는 歷史的 意味를 고려한다면 그리 어려운 것도 없다.

國民을 啓蒙하고 韓日思想을 고취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의 文學의 役割이 要請되었음과, 翻譯 또는 翻譯小說, 또는 西歐文化의 流入이 어떤 性質의 것이 先行되었던가를 연구함으로써 쉽게 開花期 新聞小說의 양식 정착을 究明할 수 있을 것이다.

西歐文學의 流入이 翻譯文學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그 契機은 歷史物이거나 傳記의 性格의 것, 그 중에서도 民族自主性을 爭取하기 위해 노력했던 人物에 관한 것 아니면 國家의 存亡을 어떻게 맞게 되었는가 하는 위기의식에 관련된 것임을 金秉喆教授는 지적해 놓고 있다.¹¹⁾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새로운 印刷術의 導入과 冊子の 發刊에 있어서 이러한 民族的 自覺을 촉구하는 서적이 먼저였다는 것은 時代的 要請과 文化的 現實이 일치하고 있음을 證明해 주는 것이 되며 또한 傳記의 性格의 文學이 當時에 要請된 理由와 일치된다고 보여진다. 즉 民族自主性과 獨立精神을 고취하는 性格의 文學은 自然히 偉人의 傳記의 小說을 要請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실질적으로 翻譯에 의한 것이거나 獨創의인 것이거나 간에 目的 달성을 위해서는 용납될 수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이 傳記의 小說의 양식은 그러므로 前代小說(古代小說) 양식과 쉽게 接

11) 金秉喆：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乙酉文化社，1975，서울，참조.

李在銑：開花期 小說의 文學社會學，(開花期文學論，螢雪出版社，中) 1978 pp. 132~134 참조.

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前代小説의 대부분이 한 人物의 一生 또는 特異한 能力을 과시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英雄說話의 構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¹²⁾

이 前代小説의 구조 골격은 1905년을 전후한 時代狀況이 要請하는 文學的 양식에 잘 어울리며 또한 그 힘을 발휘하기에 가장 적절한 주변 사정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아 大過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치전」이 連載되기 前에 이미 이러한 傳記的 형식의 記事(現在 우리가 생각하는 客觀的 사실로서의 記事가 아니라 雜報에 실린 傳的 性格의 叙事記事)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¹³⁾

韓國의 人物을 素材로 한 傳的記事가 이미 나타나 있는 이후에, 또 外國의 傳記的 小説이 번역 소개된 이후에, 「아마치전」이 連載되었다는 것은 翻案 또는 翻譯小説로서의 性格을 「아마치전」이 가질 수 있다는 可能性을 보여 주는 것이 되며 또 그 台本이 있었을 것이라는 推論을 排除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아마치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試金石으로써 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開化期 新聞小説 가운데는 독창적인 작품 같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台本이 있어서 翻案되었거나 變形된 小説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반성.

둘째, 「아마치」라는 불분명한 人物이 具體的으로 어떤 人物인가를 밝힘으로써 西歐文學 受容의 실질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12) 趙東一: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東亞文化 第10輯, 서울大學 東亞文化研究所, 1971) 참조.

13) 大韓每日申報 1905년 8월 11일에 前代小説 형식의 「적선여경녹」이 실리고 이 뒤를 이어 「西江月」이 실린다. 이것이 前代小説의 형식이라고 해서 開化期 新聞小説에서 처음부터 關心 밖으로 돌리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러한 傳的小説의 연재 뒤에 「아마치전」이 실린다는 것은 「아마치전」과 같은 소설 양식의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또 1905년 2월 22일 잡보란에 「민김사화」는 다시 「김씨구마」는 제목으로 계속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것은 다만 記事로서의 의미로 끝나지 않고 叙事的 性格을 띠고 있다.

세제, 開化期 新聞小說의 양식이 어떤 傳統的 源流와 接脉되어 있으며 西歐의 어떤 文學의 영향하에 이루어졌는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네제, 文字選擇이 갖는 意味 또한 어느 정도는 推論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

Ⅱ. 主人公 “아마치”에 對하여

開化期 新聞小說에 대한 研究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아마치전」의 主人公에 대한 分명한 해명을 보인 것은 없었던 듯하다.¹⁴⁾

表記上 나타난 이름은 그대로 「아마치」라는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究明할 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의 國적이 “의리리” 즉 이탈리아란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대체로 이탈리아의 歷史의 人物이었음이 分명한 것이므로 이탈리아 歷史의 考究에 依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의 길은 開化期에 한국에 소개된 西歐人의 대부분이 西歐 歷史上 近代人이라는 점과, 그 나라의 變革期 또는 自主獨立과 연관된 人物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추론의 범위는 어느 정도 좁혀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몇 가지 推論의 方向과 可能性에 미추어 筆者는 “아마치”가 “마찌니(Mazzi' ni, Giuseppe 1805. 6. 22~1872. 3. 10)”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마찌니는 가리바르디(Garibaldi, G. 1807~1882), 카부르(Cavour, C. B. 1810~1861)와 함께 근대 이탈리아의 통일을 완성한 세 공로자로 높이 추앙되고 있는 人物이다. 특히 마찌니는 <청년 이탈리아黨>을 결성하여 오스트리아의 壓政에 신음하는 조국의 민족 해방과 국토 통일을 위한 武力 行事を 주장하여 民族蜂起를 꾀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했던 人物이다.

마찌니는 行動的 혁명 운동가였다. 때문에 오랜동안의 亡命生活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政治的으로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이탈리아의 통일 실현

14) 李在鎭: 前掲書, 宋敏鎬: 前掲書에서 두 분 다 “아마치”를 그대로 主人公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아무런 의문도 보이지 않았다.

후, 귀국에서도 王制에 반대하여 政治 一線에 나서 보지도 못했다.¹⁵⁾

절국 마찌니는 순수한 혁명가로서의 일생을 마쳤으며, 全民族起의 수단에 의한 민족 해방과 국토 통일을 꾀한 적극적 行動家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치전」에서도 확인된다.

망명과 被逮, 戰爭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아마치전」에서 이탈리아가 통일된 후에도 끝내 “아마치”는 벼슬을 마다하고 隱居終身한 것으로 끝났음도 마찌니와 一致한다. 또 「서력일천팔백칠십년」이란 年代 표기와 마찌니의 行蹟어 歷史的 事實과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어 “아마치”가 “마찌니”임은 더욱 확실해진다.

그러면 어째서 “마찌니”가 “아마치”로 表記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릴 길이 없다. 그러나 우선 語法的인 면에서 보아 “러시아”가 “아라사”로 표기되는 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아—”의 첨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짐작되나 斷定은 어렵다. 이 문제는 「아마치전」의 台本을 確認함으로써 可能할 것이라 기대되어 다음 항목에서 詳述하겠다.

다음으로는 마찌니에 관한 歷史的 事實이나 傳記物이 1905年 이전에 한국에 소개되었는가 하는 의문도 남게 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쉽게 해결된다.

金秉喆教授의 研究에 의하면 「意大利獨立史」가 金德均演譯으로 日韓圖書印刷株式會社에서 出版된 것은 1907年 5月이지만, 그 台本인 日書는 漢譯本 「意大利獨立戰史」가 1903年, 「伊太利獨立戰史」(松井廣吉著)는 1895年 11월에 발간되어 널리 읽혀 왔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伊太利建國三傑傳」이 申采浩譯述로 廣營書舖에서 刊行된 것은 1907年 10月이지만, 그 台本인 「伊太利建國三傑」이 平田久纂譯으로 日本의 民友社에서 발행된 것은 1892年 6月이었고 이를 받아 들인 梁啓超의 「伊太

15) 三省出版社：大世界の 歷史 卷8 참조.

世界人名大事典：金鍾奇編，文公社，1974，

“ : 이성호원, 기독교교문사, 1960,

“ : 世界人名大事典編纂室, 世運出版社, 1977,

利建國三傑傳」이 그 뒤를 이었을 것으로 보아 1905年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 통일的主角이었던 마찌니에 관한 것은, 關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읽혀졌거나 알려졌을 가능성은 짙다.¹⁶⁾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마찌니에 관한 「아마치전」이 1905年 大韓每日申報에 실릴 수 있었던 가능성도 충분하리라 생각되나 그 台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마치전」이 獨創的인 作品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틀림없다.

IV. 「아마치전」의 底本 「勸告大韓人士」와의 관계

「아마치전」의 줄거리를 보면 사건의 진행이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거의 없고 다만 行蹟中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마찌니의 傳記的 記述을 壓縮要約한 흔적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다.

또 歷史的 事實과 맞지 않는 결말 부분에서는 筆者의 허구성을 直感하게 하기도 한다.

미양자병호서애하노말이성공이되면왕서돌리고성공치못하면그죄를자당하리라하니더저아마치에일언일형이구세계에자유관계가되니엇지만고의회한호호절이아니리오¹⁷⁾

마찌니는 王政復古에 承服하지 않고 물러난 人物이다. 이 歷史的 事實이 王權主義로 變質된 것은 1905년이라는 韓國的 狀況이 作用한 것이라 볼 수 있겠으며, 前項에서 人物의 확정을 위해 예로 보인 「意大利獨立史」나 「伊太利建國三傑傳」이 底本이 된 變安소설일 수 없는 한 증거일 수도 있겠다.

16) 金秉喆：前掲書 pp. 234~236, pp. 245~248 참조.

梁顯奎：開化期の 讀書階層, 出版學, 1974, 겨울호 玄岩社. 참조.

17) 大韓每日申報, 1905. 12. 21 마지막 회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치전」은 台本の 直譯은 더구나 아니며 온전한 翻案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만 이탈리아의 建國英雄 마저니에 관한 常識 내지는 知識을 小說的인 형식에 假託해서 기술했을 뿐임을 짐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마치전」의 底本은 무엇이었을까?

筆者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치전」은, 1905년 11월 24일과 25일 大韓每日申報 新報에 실린 「勸告大韓人士」를 底本으로 하여 그 中半部 이후를 한글로 옮기면서 허구성을 가세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勸告大韓人士」는 1905년 11월 24일자 大韓每日申報 一面, 雜報欄에 無署名으로 실린 記事다.

天道! 好還이요世運이不當이라窮陰劇寒에陽春이必回고猛風甚雨에晴明이頓生하나니惟願大韓人士는勿○其志氣고益勵其自強하라 現今大韓國權이他人에게全歸호境遇에濱호으로現狀을觀호즉家家哭泣之態오人人愁歎之聲이나徒然如此에意有何이리오 自今이라도大韓人士가益奮發호야學問이增進호고事業이振興호면엇지國權을回復之日이無호리오……만일一時挫折로써가自挫抑하야不能更奮하면尼호志士라謂호지못호리라記者謹請컨디近世歐州一箇名人의行蹟으로써大韓人士를爲하야提誦하노니如許호男子의志事를觀感하고効則하야自立을益圖하라.

序頭를 이렇게 적고 있다. 標題가 「勸告大韓人士」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民族的狀況에 대한 希望을 북돋아 주고 적극적 行동을 유발하려는 目的意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글은 11월 17일 乙巳條約이 체결된지 꼭 일주일만에 실린 것이고 또 그 意圖가 <한 男子의 意事를 觀感하고 効則>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民族意識이 강렬한 사람의 글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筆者는 분명하지 않다. 記事 속에 <記者>라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記者>가 오늘날 新聞社의 記者라고 斷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글을 展開로 보아 <記者>는

지금의 <筆者> 즉 <글쓴이>라는 정도의 의미로도 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¹⁸⁾

筆者が 분명하든 아니든 이 글의 성격이 民族意識의 고취에 목적을 둔 것이고, 그러기 위한 또는 직접적의 자극을 통한 行動的 愛國者의 出現 추구에 그 核心이 있었다는 사실에만은 틀림없다.

때문에 <한 男子>는 愛國精神을 具現한 人物이어야 하겠고, 또 人物의 行蹟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人物로 選擇된 것이 “마찌니”였다고 생각된다. 하필 國內 人物이 아니고 外國人이 선택된 것에도 理由는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우선 오스트리아 歷政에서 이탈리아를 獨立시킨다는 것은 곧 異民族의 支配下에서의 獨立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當時 韓國이 처해 있던 狀況과의 유사성에서 기인된 것이라 보여지고, 또 國內外에서의 活動相과 적극적 행위는 當時局에서 요구되는 行動綱領으로서의 教訓性에 부합되었기 때문이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당시에 한참 得勢를 하고 있었던 傳統的 性格의 傳에 假託하기에 알맞았다는 理由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¹⁹⁾

그러면 「勸告大韓人士」의 中半部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와 「아마치전」을 대비해서, 直譯이 된 부분과 허구성이 첨가된——또는 “마찌니”의 傳記의 事實이 첨가됨을 보임으로써 「아마치전」이 獨創的인 作品이 아니었음을 確認해 보고자 한다. (例示의 편이상 「勸告大韓人士」 부분을 [가]로, 「아마치전」 부분을 [나]로 記號化하며 引用된 부분이 실린 날짜는 아라비아 숫자로 간단히 적는다. 例: [가~1] 11.24는 <「勸告大韓人士」의 1905년 11월 24일자 게재분>이란 뜻이 된다.)

18) 趙演鉉: 韓國新文學考, 文化堂, 1966 p. 56, p. 162 등

여기서 趙演鉉教授는 文學의 作者가 독립된 職能者가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筆者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記者>가 「勸告大韓人士」속에서의 기능적 역할이 <筆者>나 <글쓴이>의 뜻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李在銑: 開化期 小說의 文學社會學, pp. 133~135. 참조.

「伊太利 建國三傑傳」에 붙인 申采浩의 序文에 「其國難이 與我相類하고 今年祚도 距金不遠이라 其艱經歷이 彷彿住來吾曾하고……」라고 있음을 보아 이 「勸告大韓人士」의 筆者도 비슷한 감회를 가졌을 것이라 짐작된다.

[가-1] 近世意大利國에 峨馬治이라 노 烈士가有하니 貧家子라自幼로 卓犖不羈려야 談兵說劍을好하더니 及長에 航海之術을 講하야 周遊西方하여 五州의 形勢를 察視함 이 大有所 悟라 <11.24>

[나-1] 서 양의 티리국에 아마치라하는 사람이 있스니 니슈도역에 빈곤한 집의 아들이라 어러서부터 뜻시 높고 괴운이 활발하여 병법과 기술은 조와허더니 나이장성하야는 천하에 주류허어 그디쥬에 형세를 널리 살피고 보고 크게 서달은 소견이 있스니 라 또 천하에 이름잇는 선비로 더불어 사귀어 놀 뒤 학식이 덕단이 발달호지라 <12.14>

[가-1]에서 人物은 이미 “峨馬治”라고 記名되어 있으며 또 出生地에 대한 언급은 전연 없다. 그것이 [나-1]에 와서 “아마치”라는 한글 표기로 바뀌었고 出生地 “니슈도”가 구체적으로 삽입되어 있음을 보아 [가]만을 臺本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고 또 「아마치전」을 쓴 사람이 이미 “마찌니”에 대한 경력 내지는 행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여기서 「아마치전」의 人物이 “마찌니”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마치”로 變名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낼 수 있겠다. 즉 “마찌니”가 「勸告大韓人士」속에 “峨馬治”로 表記되어 있었기 때문, 「아마치전」이 「勸告大韓人士」를 底本으로 번역, 허구화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고증 없이 한글 표기로 옮겼다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이탈리아의 三傑中 “카부르”는 “加富爾”로 “가리마르디”는 “加里波的”으로 漢字 表記되어 있으며 “마찌니”는 “馬志尼”로 表記되어 있는 것이 통례다.²⁰⁾ 그런데 유독 “馬志尼”만 「아마치전」에서 “峨馬治”라는 特異한 表記로 나타나게 된 데에는 분명한 理由를 밝혀낼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낱말의 첫머리에 <아-1>의 첨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R>로 시작되는 낱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M>로 시작되는

20) 金秉喆: 前掲書 p. 247.

河東鎬: 開化期小説의 書誌의 整理 및 調査, 東洋學, 제7집, 1977. p. 193 참조.

날말에는 통용될 수 없는 語法이다.²¹⁾

그러므로 이러한 表記上의 變名은 語法的 해명에서가 아니라 誤記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마찌니”에 관한 얘기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記憶이 불분명했고 또 이름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記錄하려는 의식 보다 「勸告大韓人士」가 갖는 근본적인 目的, 愛國心의 고취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誤記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으리라 봐진다.²²⁾ 만일 表記의 정확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마찌니”의 漢字表記 3字가 다 틀려졌을 리가 없다.

“峨”의 첨가는 類推作用에 의해 合理化시킨다 하고 “瑪”와 “馬” 또한 音의 類似性에서 오는 誤記라 순치더라도, 한길음 더 물러서서 “志”가 “治”로 바뀐 것까지도 音의 類似에서 온 誤記라 해도 “尼”의 탈락은 설명할 수 없다. 결국 合理的인 해명이 불가능한 것은 막연한 記憶 또는 不明確한 傳言에 의한 誤記라고 밖에 볼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마찌니”가 “아마치”로 바뀐 것은 「勸告大韓人士」의 作者가 저지른 잘못을 「아마치전」을 쓴 작자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과 그 底本으로서 「勸告大韓人士」를 인용했음을 동시에 증명해 주는 셈이 된다.

“卓犖不羈”가 “뜻시늬고 기운이 활발하여”로 번역된 것으로 보든지, “五州의 形勢를 察視함이 大有所悟라”가 “오더쥬에 형세를 널리 살펴보고 크게 세달은 소견이 있슨지라 또 천하에 이름 있는 선비로 더부러 사귀어 놀며 학식이 더단이 발달호지라”로 人物의 特出함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솜씨를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치전」을 쓴 作者가 이미 허구성에 대한 자각이 있었거나 小說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있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21) 舌卷音 “R”을 頭音에서 피하려는 頭音法則이 있다. 이것이 “Russia”를 “아라사”로 표기·발음하도록 한 것일 게다. 그러나 “唇音 M”을 頭音에서 피하는 현상은 우리 국어에 없다.

22) 이탈리아를 “意大利”로 表記한 것으로 보아 「意大利獨立戰史」 정도는 作者가 읽지 않았겠는가 추리할 수 있다.

것이다.

이것은 또한 前代小說(古代小說)에 있어서의 人物이 英雄的 形象化 내지 그 영향하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과 이것이 그대로 開化期 新聞小說에 투영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開化期 新聞小說의 양식은 새롭게 이루어진 감각스런 것이 아니며, 단순한 西歐文學의 수입에 의한 정착화라고만 볼 수 없고 다만 傳統的 양식에 西歐의 內容 또는 人物, 아니면 背景만의 代置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新小說의 형식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開化期 新聞小說 樣式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타당할 것이며 이것은 또 新小說이 李人植의 「血의 淚」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할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²³⁾

[가-2] 時에니不流(國名)人이佛兵으로더붙어合勢來攻하거날 苦戰三十日
에衆寡不敵이라知不能守하코 <11. 25>

[가-3] 其妻가飢餓困憊하야寸步難行이라遂謂其夫曰 <11. 25>

[나-2] 못잡니불류국사람이불난서군사르더부러형세를합하야성을치니 아
마치가몸으로써탄환을물름스고밤낮싸운지삼십일에군사가적어적국
을디적지못홀지라직히지못홀쥬를알고 <12. 15>

[나-3] 그부인이쥬리코곤핍하야촌보물칭허기이려운지라 호르는물름을피
여마시다가아마치다려일너갈오더 <12. 16>

[가-2]와 [나-2], [가-3]과 [나-3]을 대비해 보면 [나]에 얼마간의 새로운 엇귀가 첨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아마치가 몸으로써 탄환을 무름스고 밤낮 싸운지>라든가 <호르는 물을

23) 지금까지 新小說의 最初의 作品은 李人植의 “血의 淚”로 잡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新小說이 李人植에 와서 감각스럽게 양식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양식의 발생은 훨씬 소급해야 하겠고, 그러자면 新小說의 개념부터 다시 反省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것 같아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친다.

웅크여 마시다가) 따위의 엇귀 첨가는 底本이 갖고 있던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효과적인 표현 의식의 작용, 즉 보다 구체적이고 극적인 표현을 위한 글쓴이의 개인적 의식이 보태어져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底本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히려 어색한 직역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가-4] 鞍馬治가杖策赴之허여共和之政을助하니 <11.25>

[나-4] 아마치가막터를잡고그날라에나아가니 <12.15>

그러나 다음 대목은 「勸告大韓人士」가 底本이었기는 하지만 「아마치전」의 글쓴이가 알고 있는 지식 또는 허구성을 많이 첨가했음을 나타낸다.

[가-5] 其後에奧國과戰爭하야奇功을屢奏하고또善能和民兵에元帥가되야敵軍을屢破하고意大利의一統을成하야自由政治를定하니 <11.25>

[가-6] 七次被擒하되大志가불挫하야鹽地호國威를恢復하야歐州雄邦으로더부러併立케하니엇지天下의烈士가아니리오 <11.25>

[나-5] 기후에남미주에갓다가서력일천팔백오십륙년에좌류유아국이불난서로더부러연합하야오국과기전하더니아마치본국에도라와 의용병을소모하야선봉장이되야전공을일고기후에나불류왕이포함무도하니사지리지방의빅성이분토하야 군사물일잇키니선능화지방의빅성이호호용하야군사물들서아마치를추천하야드원수를삼으니 아마치가군사물거라리고사지리를건너가의티국중에격서를견하니원근이향응하야막하에투입하노자가부지기수타소향에무적하야파죽지세와갓타니제성니다항복하교사방이신동하노지라도저의빅성들이환영하야자유만세물불으면서아마치로써빅성을구원하노두령과자유에주인을삼으니이티여의티리국을통일하야국세를정돈하니 <12.17~19>

[나-6] 칠차성금을당하되더지를변치아니하며빅결을맞나되소리를굴치아니하야맛참니 의리리전국을통일하야나의열어진나라위엄을회복하야구라파의열강국으로더부러병립케함으로써자기에척임을삼으니

덕양기병홀씨에하노말이일이성공이되면왕희돌리고성공치못하면그
죄를자당하리라하니 더저아마치매일언일행이구주세계에자유관계
가되니엇지만교의회한호호절이아니리오 <12. 21>

[가-5]와 [나-5]를 비교해 보면 [가-5]에는 하나의 사건뿐이던 것이 [나-5]에서 사건이 확대되어 있고 더욱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보여 준다. 이것은 歷史的 史實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아마치전」의 作者가 적어도 「意大利獨立戰史」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진다.²⁴⁾

이탈리아가 漢字로 “意大利” 또는 “伊太利”도 표기될 수 있는데 그 중 “意大利”만을 사용하고 있는 「勸告大韓人士」나 이를 한글로 “의티리”로 표기하고 있는 점은 이탈리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된다.

[가-6]이 「아마치전」으로 옮겨 오면서 12월 20일에 연재된 끝 부분에서는 <칠차자루집피물입어스더덕지를변치안코>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이튿날 12월 21일에는 <칠차성금을당하되덕지를변치아니하며>로 바뀌었다. 이것은 「勸告大韓人士」가 「아마치전」의 底本이었음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자료가 된다. 그러나 [나-6]의 뒷부분에 보면 [가-6]에 없던 王權主義에 대한 해설이 첨가되어 있다. 이 사실은 「勸告大韓人士」의 結尾가 빠진 데 대한 보상행위로 볼 수도 있다.

[가-7] 是其夫妻의行蹟이可히有志者의 觀感호者가되겠노故로 擧而誦之하
노라 <11. 24>

이 結尾는 序頭와 호응하여 그 目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치전」은 [나-6]만으로 끝나고 있음으로 보아 [가-7]의 作者意識과 代置되는 부분만큼이 [나-6] 속에 王權主義의 合理化로 옮겨진 것이며 時代

24) 「意大利獨立戰史」는 1903年 漢譯本으로 나와 있었다. 그러므로 漢字解讀이 可能한 讀者는 쉽게 구해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이탈리아의 地名이 전부 漢文式 表記가 되어 있음도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의 要求 또한 [나-6]과 같은 결말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考究로 보아 「아마치전」은 獨創的인 作品이 아니고 「勸告大韓人士」를 底本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剽竊을 하고, 어떤 부분은 전달의 효과를 노려 구체화하고, 때로는 새로운 사실을 첨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겠다.

V. 「아마치전」의 作者와 文字選擇

「勸告大韓人士」가 大韓每日申報에 11월 24일 25일 이틀 동안에 게재되었고 「아마치전」은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7회로 나누어 게재되어 있다. 그 時間的 相距가 20日이나 있고 분량 또한 三倍가 되어 보이기 때문에 두 作品이 아주 달라 보이기도 하겠으나 그리하지 않음을 前項에서 立證해 보인 바 있다.

아래 남은 문제는 두 作品의 作者와 同一人이나 아니냐, 또 구체적으로 누구였는가 하는 문제와, 같은 내용의 글을 형식을 달리하여, 表記文字를 달리하여 한번 더 실게 된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作者에 대하여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구체적으로 밝힐 자료가 없다. 「勸告大韓人士」가 雜報欄에 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開化期 新聞小說 「아마치전」 또한 雜報欄에 실려 있다.

이 雜報欄의 성격으로 보아, 여기에는 讀者들의 투고도 실리고——대부분의 경우 투고된 원고는 글 쓴이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간단한 國內記事, 작은 광고 등이 실릴 수 있다. 이 중에서 國內記事나 까집은 無記名으로 실리는 것이 원칙인데 上記 두 作品 또한 無記名으로 되어 있으니 作者는 記者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 또 〈記者〉라는 낱말이 쓰였다 해도 그것이 오늘날의 다만 〈글쓴이〉, 〈筆者〉라는 뜻일 수도 있다면 〈記者〉라는 낱말만으로 그 作者를 記者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 두 作品이 20日을 相距로 실린 점으로 보아, 또 하나를 底本으로 하

고 있다는 것에서 한 作者에 의해 쓰여졌을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이것이 타당한 추측인지도 모른다. 남의 글을 이렇게 철저히 이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斷定은 어렵다.

결국 作者에 관한 한 막연하게나마 한 作者일 가능성이 짙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점만을 분명히 해 둘 수밖에 없다.

文字의 선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이를 해명하는 열쇠는 같은 내용이 형식을 달리하여 두번씩 실렸다는 점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1905년을 전후한 韓國의 政治的 주변 사정은 民族自主 精神의 고취에 있었음은 周知하는 바이며 신문의 역할 역시 그것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特別 이러한 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발간된 大韓每日申報는 記事와 論說을 통해 이 목적 달성에 박차를 가해 왔었다.

「勸告大韓人士」는 이 目的을 表面에 직접적으로 나타낸 記事였으며 이 目的達成을 위한 愛國者의 出現을 촉구하기 위해 “마찌니”의 實話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 글은 漢主國從의 文体로 쓰여졌음이 특징이다.

漢字의 理解程度나 그 수준으로 보아 이 글의 讀者는 결코 一般民衆일 수 없다. 최소한의 漢字解讀力을 가진 사람, 즉 儒學者나 그 亞流에 속하는 小數人에 한정된 것이었으리라 짐작된다.

民族自主性의 고취나 애국활동이 이러한 小數의 사람에 한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온 民族에게까지 파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오히려 “마찌니”의 行動綱領인 全民族蜂起의 底力은 民衆에 있고 이들을 啓導할 理由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므로 많은 民衆에게 읽혀질 文字의 선택이 필요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또 文字뿐만이 아니라 양식에서도 다른 양식——「勸告大韓人士」가 漢者 解讀者에게 가장 적절한 양식이었다면, 民衆에게 쉽게 먹혀들 보편적 양식은 전통적인 小說의 양식이 답습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前述했듯이 새로운 양식은 아니다.

25) 拙稿：開化期小說「一搶紅」研究，釜山大學校 文理大 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14輯，1975. 참조.

전연 새로운 양식의 도입은 初期에 있을 拒否反應이 효과를 半減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전통적 소설양식이 선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두 가지 요구가 「아마치전」과 같은 한글 소설양식 즉 開化期 新聞小說 중 傳的 양식을 成立시킨 것이며 그것은 다음에 오는 新小說로 옮겨간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文字選擇과 樣式選擇은 적어도 開化期에 있어서는 不可分の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이것은 글의 目的을 效果的으로 달성하기 위한 方便으로서의 관계도 排除할 수 없을 것이라 筆者는 생각한다.

Ⅵ. 結

지금까지의 研究結果를 요약하여 結論에 대신한다.

1. 「의티리국 아마치전」은 獨創的인 作品이 아니고 「勸告大韓人士」를 底本으로 하여 번역하면서 添削한 것이다.

2. “아마치”는 “마찌니(Mazzi'ni)”의 誤記에 의해 생겨난 이름일뿐 새로운 허구적 인물이 아니다.

3. 開化期 新聞小說 樣式的 成立에는 文字의 選擇과 目的——民族自主 精神고취——의 效果的 達成을 위한 方便으로서의 關係를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4. 開化期 新聞小說에 이미 虛構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5. 李人植의 「血의 淚」 이전에 이미 開化期 新聞小說의 樣式은 成立되어 있었기 때문에 新小說의 最初의 作品은 더 거슬러 잡는 것이 좋겠다.

6. 開化期 新聞小說의 樣式中 傳的인 것은 傳統的 小說樣式과 西歐의 傳記類가 結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관계는 外的樣式에는 變化가 없으나 그 속에 담기는 내용에 개혁이 있는 셈이다.

7. 西歐의 歷史物이나 傳記類의 作品은 翻譯出版되기 前에 日本書籍을 통해 널리 읽혀졌음을 알 수 있다.

8. 開化期 新聞小說에 쓰인 <記者>는 현재의 新聞記者와는 달리 <글쓴이> <筆者>의 뜻으로 쓰여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근거로 그 作者를 當時의 新聞記者라고 단정할 수 없다.
9. 開化期 新聞小說是 그것이 掲載된 新聞의 性格에 따랐거나 制限을 받았을 것이다.